

■■■ 업계동정 ■■■

LG産電(株), 대용량 차단기/개폐기 CE마크 획득

LG産電(株)(代表 : 李鍾秀)가 지난해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글로벌 제품인 대용량 차단기와 개폐기(Meta-MEC 시리즈)에 대해 유럽공동체 인증마크인 CE 마크를 획득했다.

LG산전이 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독자 모델로 개발한 Meta-MEC 시리즈는 배선용차단기 75개 기종, 누전차단기 9개 기종, 전자개폐기 75종 등 총 159개 기종을 갖추고 있는데, 세계 선진업체의 제품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개발과정에서 국내 및 유럽, 동남아 등

총 90여건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기술축적에도 큰 성과를 보인 제품이다. 이로써 LG산전은 이미 지난해 CE 마크를 취득한 소용량 차단기·개폐기 Hi-Mec 시리즈에 이어 중·대용량 Meta-MEC 시리즈까지 전 타입에 대해 CE 마크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내 중전기 분야에서는 최초의 성과이다.

한편 유럽지역의 경우 CE 마크 취득이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마크취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LG電線(株), 광섬유 온도 계측시스템 개발

LG電線(株)(代表 : 權炆久)는 광섬유를 이용해 화재나 가스누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광섬유 온도 계측시스템은 지중송전선로의 상태나 LNG(천연액화가스)탱크, 공장, 백화점 등 화재나 폭발위험이 잠재해 있는 곳에 설치해 이상온도와 위치를 측정, 사고를 방지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LG전선이 한국전력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난 '96년부 18억원을 들여 개발에 착수한 광섬유온도 계측시스템은 광케이블 1가닥으로 2km까지의 온도변화를 ±1°C까지 1m 간격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센서

및 데이터 전송로로 광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시스템이 안고 있는 전기신호에 의한 전자파 장애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측정환경의 안정성과 유지 및 보수가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LG전선은 올해 말까지 10km까지 감시

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으로 대형 플랜트등의 지중송전선 상태감시, LNG탱크 및 파이프의 누설감지, 공장과 건물의 배전설비, 용광로벽의 온도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규격인정품목 지정 안내

한국전력공사 구매시방서 개정에 따라 규격인정 품목을 추가 지정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품 목 : 케이블 엘보접속재(PS147-221~229, 151-966~997)
- 규 格 : 개폐기접속재 추가
 - 스틱조작형 개폐기접속재 325mm² 등 4종 및 부속재
 - 데드브레이크형 개폐기접속재 325mm² 등 4종 및 부속재
- 시험사용 : 없음
- 연간 구매예상량 : 약 50,000개
- 시 행 일 : 1998. 3. 31